

이긴자 일대기 [4]

출생기

조희성님은 어릴 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다. 주님이 잠들었을 때 마귀는 가위놀림을 행하여 죽이려고 수시로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가위놀림서 만 날 까무러칠 적마다 어머니가 주님을 안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깨어나고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조희성님이 일곱 살이 되자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주님은 무조건 바깥으로 뛰어 나가서 뒷집 앞에 벗집다발을 쌓아놓은 짚가리를 그냥 들이박고 막 비비는 것이다. 이런 일을 자주 겪던 일곱살 때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흰돌 하나를 받았는데 그사연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삼십 대에 정신을 잃고 완전히 인사불성(人事不省)한 상태에서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성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다로 끌고 가는데, 도착한 곳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고 온 천하가 환한 빛으로 밝히는 곳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 안에 보인 않고 환한 빛만 비쳤던 것이다. 그래서 빛이 있는 그 하나님에게 성모님이 “나는 어린 자식들이 많습니디.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오겠습니디. 나를 돌려보내주시시오.” 하고 통사정하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그토록 어린 자식들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소원대로 어린 자식들 다 키워놓고 육십 살에 와라.”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흰 돌 두 개를 쥐서 양손에 각각 한 개씩 쥐자마자 테리고 간 사람들이 성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또 바다속으로 오는데 그만 흰 돌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 정신을

차려서 잃어버린 흰 돌을 찾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시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는 광경을 주님은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흰 돌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긴자 구세주로 출현하시어 만민들을 구원하도록 예정된 주님한테 주려고 흰 돌 하나를 도로 빼앗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꿈도 아니요, 생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에게 흰 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절대로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한다. (1983. 5. 23. 말씀)

10대 시절

조희성 주님의 집에서 짓는 농사는 모두 소작이었다. 아버지라는 분은 가정의 일과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항상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는 등 언젠든 먼저 남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였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40여 두락이 되었던 것이 20여 두락으로 농지가 줄어들게 되어 생활이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은 고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추수가 끝나면 아버지 몰래 벼 가마니를 감추시는 등 살림 걱정에도 무척 애를 쓰셨다. 어머니께서 농사일을 비롯한 자녀 부양과 가사 전반에 걸친 일에 몹시 고생을 하심으로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농번기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모 품앗이를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초등학교에 어른을 대신하여 모를 심겠다고 강하게 거부하셨



▲ 조희성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 대신 모 품앗이를 자청한 효자였다

으나, 포기하지 않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만 시켜봐 주세요!”하고 자꾸 조르니 마지못해 해보라고 허락하셨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어른들 틈에 끼여 모를 내리니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파도 꼭 참고 어른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모를 냈던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대신 모를 심다 보면 같이 일하는 어른들이 “야, 희성이, 모 참 잘 낸다.”하며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두어 포기 꽃고서 아픈 허리를 세우고 쉬면서 점점 모심는 면적을 넓혀 주는 것이었다. 물론 주님은 어른들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른들이 넓혀 주는 면적을 다 심기도 전에 못줄이 넘어가는 고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를 심어야만 했다. 어린 나이에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참았다.

논밭 중에는 물렁물렁한 곳도 있지만 어른들조차 손가락이 아파서 절절대는 개흙 같은 논에서 초등학교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잘 꽃아지지 않는 모를 내려

고 하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힘들게 모내는 것을 아버지가 면에서 보고 “내가 교대를 해 줄 테니 이제 나오나라.”고 하여도, “저는 모내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조금도 힘이 안 듭니다. 격정 마시고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하고 더 열심히 모를 냈던 것이다. 그 소리를 옆에 사람들이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손끝이 닳아서 통증이 오고 피가 날 정도의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가 기어코 일을 끝내고 집에 오곤 하였다. 매일같이 계속 반복하여 모내기철이 끝날 무렵쯤 되어서는 온몸이 춥고 떨려오는 말라리아에 걸려 밤새도록 앓고 밤을 지새우다가 이튿날이면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모를 내려 간 적도 있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부모님께서 “아픈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시며 만류를 하셔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은 오죽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만큼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농번기 방학동안 모내기 일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20대 시절

6.25 한국전쟁 당시 교회 중 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데모로 풀려나올 수 있었다. 자전거에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하숙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가서,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주님께 총부리를 들이대며, “너, 조희성이지? 손 들어!” 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로 끌고 갔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골수분자였던 하숙집 주인이 인민군에게 고백하치기를, “방금 우리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이 와 있소. 그의 형이 수도국의 경찰복장을 하고 가끔 들러 동생을 만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라고 하였던 것이다.

인민군들은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는 학생인 주님의 양쪽 무릎 오금에 네모난 마차철주를 끼워 놓고 꿰어 앉혔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 아파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이 못 일어서도록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양쪽에서 잡고 내리누르며 또 다른 사람은 구두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짓밟았다. 그러면서 “너의 형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안다. 얼른 있는 곳을 대라.”는 것이었다.

조희성 주님이 말을 하지 않자,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곡괭이 자루로 주님을 인정사정없이 깨 패듯 하는 것이었다. 그때 형님은 김포 고향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이

뻔했다.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어 죽는 것이 낫지 온 가족이 몰살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말을 못하도록 혀를 깨물었다. “옥”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피가 터지자 인민군들은 “이 간나 새끼 약질 반둥이구만!”하며 여섯 명이 있는 힘을 다하여 시정없이 때리는 것이었다.

때리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매질을 가다가 힘들면 교대로 때렸다. 얼마나 세계 때렸던지 곡괭이 자루가 서너 개가 부러졌던 것이다. 주님이 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양동이에 찬물을 떠 와서 끼얹어 붓고 꼼틀거리면 또 곡괭이 자루로 사정없이 때리고 또 찬물을 끼얹고 하여 거의 죽을 때까지 매질을 가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주님의 온 몸과 팔다리가 마치 개구리가 죽을 때 다리를 떼다가 잠시 후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떼다가 푹하고 꺼지는 상태가 되니, 그들은 주님이 죽은 줄 알고 몽둥이질을 그치고 가마니를 쓰러진 몸 위에 덮어놓는 것이었다.

그 당시 흑석동 감리교회 이찬영 목사의 사모님이 목격한 증언에 따르면, 조희성님이 마지막에는 마치 돌에 맞은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다리를 떼낼 뻔고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그 사모님은 자기 교회의 청년 지도교사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말짚가니 따라와, 인민군 본부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틈으로 주님의 매 맞는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돌아와 남편 이찬영 목사에게 말했다던 것이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찬영 목사는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 반가와 손을 잡고는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던 것이다.

상단에 이어서

30대 ~ 40대 시절

군에서는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의 근무평정표에 점수를 매기고 의견을 적기도 하는데, 주님은 육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몇 번 제대원서를 적어 내어도 제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육군본부 부관참모부에 근무하는 동기생에게 물어보고서야 알게 되어서, 조희성 주님은 편법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예전에 주님이 영모님으로부터 꿈 안찰을 받기 전에는 밤낮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몸이 쇠약해져 폐결핵에 걸리었는데 꿈 안찰을 받고 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었다. 그래도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희끗하게 찍혀 나오므로 그것을 잘 아는 군 동기생이 되는 군의관에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병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주님이 11년간의 군대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군대의 상관에 대한 복종심과 충성심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을 주님에게 심어주기 위해 연단의 장소로 활용하셨기 때문이다.

1963년 7월 31일, 주님은 장교생활 11년 만에 육군 중위로 제대한 뒤, 열두 부양가족을 데리고 소사 신앙촌에 입주했다. 그런데 제대할 때 받은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몽땅 사기를 당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가진 돈이 떨어져 가족들이 굶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장사라도 해 보려고 신앙촌 내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 물건을 대주면 장사를 해보겠다고 간청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조 중위 마귀가 왔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등 상대조차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다. 다른 공장으로 갔으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같은 마귀한테 물건을 대주었다가는 마귀로 찍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당신이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

이긴자 일대기



▲ 노고산(老姑山)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

들이 “마귀가 왔다.”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먹으로 귀뚱이를 쥐어박거나 매를 때려 푸른 멍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님은 이런 모진 압박을 받으면서도 하루라도 예배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노고산 산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을 향해서 올라가면 마귀새끼가 온다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주님을 붙잡고 으스스한 소나무 숲속에 끌고 가서는 모포를 뒤집어씌우고 발길질을 하고 개 패듯 하였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뼈마디가 부러졌거나 골병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씻은 듯이 아픈 곳이 나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다. 신앙이 없는 동생들이 눈치를 채고 혹 신앙촌 밖으로 나가버릴까 봐 매를 맞아도 매 맞은 표지를 내지 않았다. 매를 맞은 날이면 매 맞은 자리를 손으로 비벼서 푸른 자국을 없애 뒤에야 집에 들어가곤 했다. 그러다보니 매번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주님은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날이면 날마다 안내원이 제단 현관문에 지켜 서서 마귀라고 예배를 못 보게 하므로, 영모님

설교 말씀을 멀리 숲에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소리로만 들어야 했고 그토록 보고 싶은 영모님 얼굴을 뵈는 것조차 힘들었다. 예배 인도 차 오만제단에 올라가실 때의 차에 타신 모습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도 뵈을 수 있을 때는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반갑고 고마운고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곤 했다.

또 영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승용차로 내려가실 때, 주님은 급히 달음질쳐서는 도로변에 서서 영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때는 영모님께서 차를 잠깐 멈추신 뒤, 주님에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하는 사업은 잘돼?” 하시며 물어보시곤 했는데 영모님께서 주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가시곤 했다.

영모님이 차 안에서 주님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을 목격한 신앙촌 사람들 몇몇은 다음부터 조희성님을 마귀라고 폄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수많은 신앙촌 신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였다.

50대 ~ 60대 시절

주님(둘째 아담)이 완성자가 되어 1년 동안 밀실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죄를 담당해서 의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밀실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의인이 됐다’로 떨어지던 1981년도에, 저 아래 기장에 계신 영모님이 “이 헬미(헬미)가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모든 살림을 떠나라는데 다 맡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단에서 서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영적 동정녀가 되시는 영모님이 낳은 둘째 아담이 장성해가지고 이 둘째 아담이 밀실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여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손자들을 낳으니까, 둘째 아담은 떠나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손자를 보게 된 영모님은 영적 엄마에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이다.

1년 동안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밀실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의인으로 되어갈 때, 바로 81년 8월 18일에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그날로 세상에 나오시게 된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6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6

영역 일체 :

하나님 = 생명 = 사람의 빛 = 성령 = 영 = 마음(양심) = 피 = 육체

Oneness of Spirit and Body :

God = life = light of human = Holy Spirit = Spirit = heart (conscience) = blood = body

(하나님 = 생명) 생명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 욥기 27:3

(God = Life) Life is in me, and the breath of God is in my nostrils - Job 27:3

(하나님 =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 민수기 16:22

(God = Life of the flesh) God, God of the life of all flesh - Numbers 16:22

(하나님 = 육체의 생명)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 민수기 27:16

(God = Life of flesh) Jehovah, God of life of all flesh - Numbers 27:16

(하나님 =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 요한복음 4:24

(God = Spirit) God is spirit - John 4:24

(하나님 = 영) 주는 영이시니 - 고린도후서 3:17

(God = Spirit) The Lord is Spirit - 2 Corinthians 3:17

(하나님 =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 고린도전서 6:17

(God = Spiri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 1 Corinthians 6:17

(육체 = 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 고전 15:45

(Body = Spirit)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spirit, and the last Adam is a life-giving spirit - 1 Corinthians 15:45

(하나님 =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 디모데후서 1:14

(God =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that dwells in us - 2 Timothy 1:14*

by Alice